



코로나19 언론 보도와 백신 접종 의도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의 매개효과

홍주나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COVID-19 media reports and vaccination intentions

Mediating effects of infection susceptibility an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vaccination*

Juna Hong**

(Master course, Ewha Womans University)

Soontae An***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look at the intention to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which is highly recommended as a way to end the pandemic through the Health Belief Model. In order to enhanc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e safety of the vaccine and its public trust must be ensured. However, media coverage of the COVID-19 vaccine mainly shows its adverse effects that raise doubts and aggravate fear about its safety.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empirically understand how the media coverage affects people's perception of bCOVID-19 and the vaccine and, in turn, how this affects the intention to be vaccinated.

The study uses the Health Belief Model of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as the main variable of the study to identify the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the COVID-19. To this end, it presents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the COVID-19 infection and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COVID-19 vaccine in order to look at their perceived susceptibility with the intention of its vaccination. The study involved participants between the ages of 20 to 49, who had not previously been infected with COVID-19 or vaccinated. As a result, 226 data were collected, based on which an analysis on the

* This research is based on Juna Hong's M.A. thesis defended at Ewha Womans University(본 논문은 홍주나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본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C2A03092919).

** kenttal0207@naver.com

*** soontae@ewha.ac.kr, corresponding author

parallel multiple mediator effect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spondents who read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the COVID-19 infection increased their perceived susceptibility to the COVID-19, and such resul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erefor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usceptibility to the COVID-19 as a mediating variabl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addition, the respondents who read news emphasizing susceptibility to the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increased their perceived susceptibility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vaccine. Moreover, it had a negative effect on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erefore, their perceived susceptibility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vaccine as a mediating variable had a significant effect. However, it was found that types of news as an independent variable did not affect th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e study looked at the influence of media reports during the pandemic and the effects on th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with perceived susceptibility of the health belief model and cue to action. In a pandemic crisis such as the COVID-19, what kind of messages can be used to promote people's health behavior is as important as the influence of the media. The study results confirm that health-related media report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ople's actual health behavior inten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offer useful directions in recommending COVID-19 vaccination to the public.

Keywords: Media reports, Cues to action,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1. 서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부스터샷 등 백신 접종이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에 처음 보고된 지 거의 2년이 되었지만, 다양한 방역 대책 속에서도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의 형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정준호·김옥주, 2020). 하지만 한국사회에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이 집단 면역 효과를 보려면 전체 인구의 60-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접종률이 6% 만 하락해도 집단 면역의 형성에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정광용, 2020).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접종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언론의 백신 접종 보도가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정확한 기사를 지적하며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많고(서강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2021), 언론보도가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왔다(박진준, 2021; 성재호, 2021).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부재하다. 이에 3차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되짚어보며 공중보건과 알권리의 균형적 접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백신 부작용을 강조하는 기사가 백신 접종에 대한 의도를 실제로 낮추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런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논의가 요청된다.

언론보도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별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미디어를 통한 위험 정보는 특정 종류의 재난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Singer & Endreny, 1993). 특히 미디어를 통한 건강 정보의 전달은 건강 관련 이슈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이귀옥, 2010). 건강에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이 겪을 피해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즉각적일 경우 이에 관한 언론 보도는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미나·홍주현, 2018).

실제로 미디어와 건강신념, 행동의도의 상관관계는 다양한 상황에서 검증되어 왔다. 광우병에 대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광우병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쇠고기 구매 의도가 감소했고(최명일·김경환·주지혁, 2009), 부정적 행위단서로서 매스미디어 보도가 건강신념을 거쳐 약물사용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김준홍·윤영민, 2010), 우유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우유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김진서·신형철, 2020) 등은 건강신념모델의 관점에

서 미디어 보도의 영향력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건강신념에 영향을 주어 예방 접종률이 감소했던 연구(유석조·정현주·박현순, 2010)결과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언론보도, 코로나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 행동 의도와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미디어와 예방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김활빈·오현정·홍다예·심재철·장정현, 2018; 김옥태·김규찬, 2010; 유석조 외, 2010; 유우현·정용국, 2016)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디어와 예방행동간의 관계를 살피는데 유용한 실증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에 비해 감염자의 수가 월등히 많고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이슈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과거의 감염병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언론 보도 측면에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차이를 보인다.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보건 당국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고 일일 브리핑을 제외한 모든 언론 취재 요구를 거절하는 등 소극적인 언론 보도 양상을 보였다(김은성, 2015). 반면 코로나 19의 경우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감염자 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는 백신 접종 현황과 백신 부작용에 관련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건강신념모델 중 자신이 위험이나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신념인 '지각된 취약성'을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신념모델에 따르면 지각된 취약성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 언론 보도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우 높아진 감염 취약성이 백신 접종의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우 백신 접종의도가 낮아질 수 있다. 즉 언론에 의해 어떤 취약성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질병 자체에 걸릴 취약성과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나타날 취약성이 서로 독립적인 위협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Bond et al.,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두 가지 상이한 언론보도가 백신 접종 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언론 보도와 지각된 취약성, 예방행동으로서의 백신 접종 의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언론 보도와 백신에 대한 위험 인식

오늘날 가장 강력한 위험에 관한 정보원은 미디어로(Singer & Endreny, 1993), 미디어의 위험 보도는 개인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준다(Abdelmutti & Hoffman-Goetz, 2009; Paek, 2017).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이란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동일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에 따라 자신의 경험이나 과학적 지식, 감정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위험을 다르게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보다는 그 사회의 정보소통체계를 통해 위험을 인식하게 되는데(송해룡·김찬원·김원제, 2013), 감염병과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위험들은 전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디어나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위험을 해석하고 평가하게 된다(최부현, 2021).

언론이 위기 상황에서 전달하는 정보나 뉴스는 공중이 위험을 인식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불확실한 정보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일수록 더 신중하게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한다(박주현, 2020). 하지만 언론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위험 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에 충실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공포나 분노를 더 자극하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백해진, 2017; Hove, Paek, Yoon & Jwa, 2015; Sandman, Miller, Johnson, & Weinstein, 1993).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언론들이 백신 접종 반응을 두고 속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성재호, 2021).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의 위험 보도는 단순히 그 빈도 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양정혜, 2010). 빈도가 증가할수록 뉴스의 실제 내용과는 관계없이 위험에 대한 회상도가 높아져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Tversky, 1974; Wilson et al., 2004). 또한 위험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의 진위에 대한 논쟁이 많으며, 정보가 선정적일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최진식, 2009).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지니고 있는 거대한 힘의 원천은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로 설명될 수 있다. 부정성 효과란 ‘사람들이 메시지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메시지 보다 부정적 메시지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현상’을 말한다(Henard, 2002). 언론 보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도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 긍정적일 때 보다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어 왔으며(최은비·김효숙, 2011),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긍정적인 언론보도보다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dambi & Schuff, 2010). 과거 홍역예방접

중을 받은 중학생들의 집단이상반응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을 때, 백신에 대한 사회적 불안으로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온 사례가 있었다(한주희, 2002). 이처럼 미디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주영기·유명순, 2016). 이때 미디어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를 선택, 강조, 축소 혹은 배제하여 보도하며(Gitlin, 1980),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 경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결합될 때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은 더욱 더 확산될 위험이 있다(Gregory & Satterfield, 2002).

2) 코로나19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

지각된 취약성이란 질병의 감염 혹은 발병 가능성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민감성의 정도를 의미한다(Rosenstock, 1974).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개인 및 가족의 건강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계층과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미 2년 가까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립중앙의료원, 2021).

라자루스(Lazarus, 1991)에 따르면 위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감정은 불안과 공포로서, 불안과 공포는 상황을 위협으로 인지하여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한다. 백신 접종의 경우 질병이라는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김재휘·부수현, 2011). 이에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위협을 피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핀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각된 위험과 감정적 차원의 걱정(worry)이 백신접종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Karlsson et al., 2020).

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반복적으로 이상 반응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자신에게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로 과도하게 인식한다”고 한다(김지훈, 2021).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를 통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도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왕재선과 김서용(2021)의 연구에서 국민들은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접종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건이 추가될 경우 급격하게 부정적 반응으로 태도가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건강신념요소 중 지각된 취약성이 접종 의도와 부작용 시 접종 의도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왕재선·김서용, 2021).

KBS의 '코로나19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변화 추이 조사 9월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93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별로' 또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이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인데도 접종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문제는 아니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KBS,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지각된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언론 보도의 역할을 주시하고자 한다.

3) 건강신념모델에서의 행위단서, 지각된 취약성, 예방 행동의도

건강신념모델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신념과 건강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론적 틀이다(장해·박주식·이경식, 2020). 지금까지 암, 고혈압, 에이즈, 신종플루와 같은 다양한 질병 상황에서 건강신념모델이 적용되어왔다(장해 외, 2020). 건강신념모델의 첫번째 요인은 지각된 위험(perceived threat)이다(이병관·오현정·신경아·고재영, 2008). 지각된 위험은 질병의 위협이나 위험 수준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지각을 말하며, 지각된 위험은 다시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과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으로 구분된다(이병관 외, 2008). 지각된 취약성은 특정 질병에 자신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아가 그 질병에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신념을 말한다(이병관 외, 2008). 특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행동을 취하게 되며, 이에 지각된 위험은 개인의 예방행동 수행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Eames, Tilston, Brooks-Pollock, & Edmunds, 2012).

건강신념모델의 다른 요인들은 건강 행동을 수행하였을 때 그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로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s)과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가 있다(조성은·신호창·유선욱·노형진, 2012). 지각된 이익은 개인이 건강 관련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익이나 지각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각하는 개인의 신념이며, 지각된 장애는 개인이 건강 관련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고통이나 불편, 금전적인 부담 등을 의미한다(이병관 외, 2008). 지각된 이익과 장애는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건강행위가 얼마나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인의 건강행위 의도를 예측한다.

또한 취약성, 심각성, 이익과 혜택이라는 건강신념들 외에도 건강신념모델은 개인의 건강

행동을 자극하는 요소로서 행위단서를 제시하고 있다(Janz & Becker, 1984; 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94; Sheeran & Abraham, 2001). 행위 단서는 크게 내적 단서(예를 들어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의 지각)와 외적 단서(예를 들어 외부로부터 전달받는 메시지)로 나뉘며, 외적 단서는 또 다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같은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보도와 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된다(최명일 외, 2009). 특히 미디어 보도와 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위험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예방 행동의도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서 다루어져 왔다(Coleman, 1993; Jones, Denham, & Sprinston, 2006; Morton & Duck, 2001; Tyler & Cook, 1984).

예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행위 행동에는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 지각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때 TV를 통해 신종플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태 외, 2010). 이어 위험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와 부정적인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위험에 대한 판단 정도가 달라졌다(손정아, 2015). 예를 들어 원자력의 경우 보통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데, 사람들이 원자력의 낮은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실제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고 한다(Finucane, Alhalami, Slovic, & Johnson, 2000). 이처럼 자신이 마주한 위험이나 문제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은 본인이 어떤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혹은 그 초점의 방향을 제시하는 외부의 정보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손정아, 2015).

사람들이 질병의 위험성을 높게 예상하고, 백신 접종이 그러한 위험을 피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될수록 사람들의 백신 접종의도는 높아진다(Hutchinson & Wheeler, 2006; Latimer, Salovey, & Rothman, 2007; Marra et al., 2009). 자신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지각된 취약성이라고 정의할 때,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 경우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각된 취약성이 낮을 경우 예방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Hayden, 2009). 잔즈 외(Janz et al., 1984)가 취합한 37편의 연구 중 30편(약 87%)의 논문에서 지각된 취약성과 행동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HPV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수록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조수영, 2011). 지각된 심각성의 경우도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메타 분석 결과 지각된 취약성에 비해 건강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Brewer et al., 2007; Carpenter, 2010; Zimmerman et al., 1994). 이어 홍콩의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건강신념모델의 신념 중 지각된 취약성이 다른 신념들에 비해 예방 접종 의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ok et al., 2006). 또한 김지은 외(2018)의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들의 당뇨병 예방 의도를 높이기 위해 당뇨병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게 하여 당뇨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디어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보건 지식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실천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Dutta-Bergman, 2004). 에그너(Egger, 1998)는 의학저널리즘과 공공인식 연구에서 건강과 관련된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로서 TV와 인터넷을 제시하였는데, 그 예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채널 중 유방암의 경우 인터넷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TV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의철·진창현, 2011). 또한 미디어 노출이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병관 외, 2008; 최명일 외, 2009; 홍석민, 2013)이 다수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그 나나세카란 외(Gnanasekaran et al., 2006)는 미디어 보도가 예방 접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대중매체가 예방 접종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Gene, Espinola, Cabezas, & Boix, 1992)도 존재하고 있으며, 다슨(Dawson, 2005)은 MMR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 보도가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미디어 보도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예방 접종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긍정적 효과를 주기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언론보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건강정보의 주요 요인으로서 언론보도의 영향력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요청된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행위단서로서의 미디어 보도는 건강신념모델의 하위 요인으로서의 지각된 취약성과 건강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보도가 감염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우와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우를 대조하여 본다면 전자의 경우 지각된 감염 취약성이 백신 접종의도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이는 백신 접종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행위단서로서 언론 보도는 취약성이라는 매개변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이한 초점의 언론보도는 각각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백신접종의도에 미치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기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성이나 유용성은 동일하지만 취약성에 대한 초점이 상이할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백신접종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기사유형에 따른 직접효과와, 감염 취약성/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로 제시한다.

연구기설 1. 기사 유형(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v.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기설 2.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접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기설 3.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접종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실험 설계 및 절차

(1) 기사 실험물의 구성

총 2가지의 기사 실험물을 만들었고, 실험 참가자들은 2개의 집단 중 한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사는 인터넷 기사 형태로 만들어 졌으며 설문지 상단에 기사 실험물을 제시하였다. 이 때 응답자들이 기사 실험물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1분 간 기사 실험물을 읽을 것을 명시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은 제목이 총 39자, 내용은 총 268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은 제목이 총 35자, 내용은 총 257자로 구성되었다. 두 기사는 유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이한 제목과 초점을 제시하고 있다(〈부록II-1〉 〈부록 II-2〉).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취약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4차 유행시작 40일만에 4만 6000여명 감염, 25일째 네 자릿 수”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었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사흘 간 백신 이상반응 3천 건 이상 급증, 사망자는 5명 추가”라고 구성되었다.

(2) 기사 실험물 조작화 검증

본 설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사 실험물에 대한 조작화 검증을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의 20세 이상-50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84명이 응답하였다. 사전 조사는 기사 실험물 중 1개를 보여준 후 문항에 답하게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은 ‘귀하께서는 위 기사를 읽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위 기사를 읽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위 기사의 가독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위 기사의 정보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위 기사의 유용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의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높지 않다(1점) - 매우 높다(5점)로 구성되었다.

‘귀하께서는 위 기사를 읽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4.05$, $SD=.96$)을 읽은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50$, $SD=0.88$)을 읽은 사람보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t=2.75$, $p<.01$). 두번째로 ‘귀하께서는 위 기사를 읽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2.50$, $SD=1.06$)을 읽은 사람보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48$, $SD=0.98$)을 읽은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t=-4.40$, $p<.001$).

또한 두 개의 기사 실험물 간 가독성과 정보성, 유용성에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는 위 기사의 가독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위 기사의 정보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위 기사의 유용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의 3개 질문을 사용하였다. ‘귀하께서는 위 기사의 가독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38$, $SD=0.84$)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20$, $SD=0.90$)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귀하께서는 위 기사의 정보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20$, $SD=0.88$)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00$, $SD=1.16$)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위 기사의 유용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15$, $SD=0.86$)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32$, $SD=1.03$)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두 개의 기사 실험물이 조작화 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실험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 보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이미 접종한 사람들도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험이 없고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없는 전국의 20세 이상-50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모집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링크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집하였다. 설문은 약 15분 가량 소요되었고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총 22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후 응답한 설문지는 118부이고,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대한 응답은 108부이다.

2) 연구 변인 및 측정

(1)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은 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은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유석조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취약성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나에게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가족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 감염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변인의 Cronbach's α 값은 0.69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은 개인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은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유석조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취약성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나에게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가족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변인의 Cronbach's α 값은 0.80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는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는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위트 외(Witte et al., 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바탕으로 윤도연(2016)이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해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을 맞을 의사가 있다',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할 의향이 있다', '나는 나의 주위사람(가족 및 친구)에게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권유할 의사가 있다'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 변인의 Cronbach's α 값은 0.88로 나타났다.

(4) 기타 측정 변인

본 연구에서는 백신접종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후 언론보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지각된 이익, 정기적 독감 백신 접종 여부,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는지의 여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지각, 코로나19 진단검사 경험 여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 코로나19 관련 일상생활 정보의 양, 코로나19 백신 관련 미디어 정보의 양,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백신접종의도에 미치는 언론보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 건강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지각된 심각성의 경우 지각된 취약성과 함께 건강신념모델 내 인지적 구성요소로서 작용하며(장유진·김영옥, 2016), 두 가지 구성요소를 합쳐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이라고 부른다(주지혁, 2017). 연구에서는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유형이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각된 심각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은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들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

된 심각성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들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지각된 이익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들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방 접종에 대한 경험이 예방 접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병관 외, 2008)를 토대로 정기적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경험은 ‘귀하께서는 독감 백신을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예/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이어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의 가족/지인/이웃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해 예/아니오로 측정하였다.

건강 상태가 예방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Evans & Watson, 2003; 안순태·강승미, 2017)을 토대로 건강 상태의 경우 ‘귀하께서는 평소 본인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경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예/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이어 ‘귀하께서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보 관여도의 경우 일상과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얻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전혀 없음(1점) - 매우 많음(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성별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4. 연구 결과

1)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179명, 남성이 47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 비율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전체의 75.7%로 가장 많았다. 종교의 경우 무교가 전체의 64.2%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20대가 135명(59.7%), 30대가 55명(24.3%), 40대가 36명(15.9%)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전체의 6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20.4%), 대학원 졸업(12.4%)순 이었다. 직업의 경우 학생이 86명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였고, 사무직 및 기술직이 73명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계 종사자는 전체 응답자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어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77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56명(24.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8명(16.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2명(14.2%), 400만원 이상이 23명(10.2%)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의 85%로 나타났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2명에 불과했다.

2) 주요 변인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M=4.21$, $SD=0.5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M=3.72$, $SD=0.77$),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M=3.42$, $SD=0.65$)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위와 같다. 전체적으로 감염 취약성이 백신 부작용 취약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백신 접종 의도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은 왜도의 경우 모두 ± 2 를 넘지 않고 첨도 또한 ± 7 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14$, $p<.05$). 이

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24, p<.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and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Variables	1	2	3
1.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1		
2.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12	1	
3.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14*	-.24**	1

Note: * $p < .05$, ** $p < .01$

4)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두 집단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을 측정하였고, SP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1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연구가설 2, 연구가설 3의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사 유형에 따라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는 백신접종의도에 정반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분석 결과는 <Figure 1>과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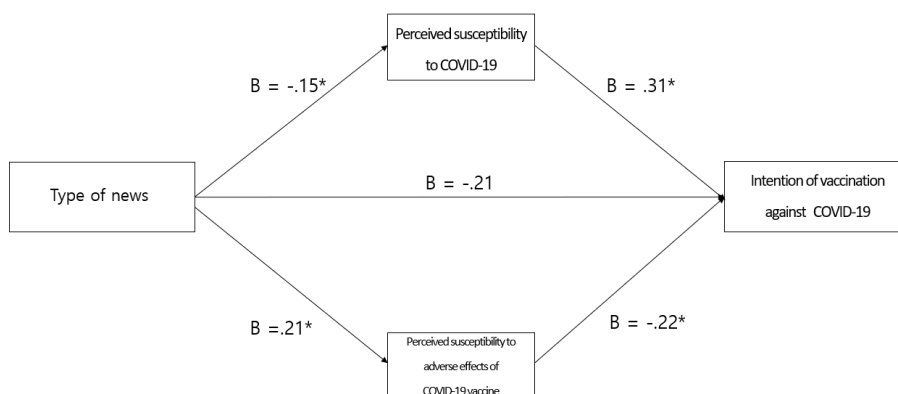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uscept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type and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Note: * $p < .05$, $N = 226$

Type of news: 1)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COVID-19 infection, 2)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Table 2.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uscept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Type and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i>B</i>	<i>SE</i>	<i>t</i>	<i>p</i>
(IV) → (M)				
News type →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15	.07	-2.160	.03
News type →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21	.10	2.082	.04
(M) → (DV)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31	.13	2.416	.02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22	.09	-2.446	.02
Direct effect				
News type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21	.13	-1.544	.12
Indirect effect				
	<i>B</i>	<i>SE</i>	95% CI	
			<i>LL</i>	<i>UL</i>
News type →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05	.03	-.12	-.002
News type →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05	.03	-.11	-.001
Total indirect effect	-.09	.04	-.19	-.02

Note: $N = 226$

Type of news: 1)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COVID-19 infection, 2)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먼저 백신 접종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통제 변인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변인 중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t=2.402, p<.05$)의 영향이 나타났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이 높은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졌다. 이어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변인 중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t=2.783, p<.01$), 백신 접종에 대한 지각된 이익($t=-2.870, p<.01$)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이 높고, 백신 접종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낮을수록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졌다.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또 다른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변인 중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t=-2.288, p<.05$), 백신 접종에 대한 지각된 이익($t=4.239, p<.001$), 백신에 대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t=2.130, p<.05$)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이 높을 수록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가 낮아지고, 백신 접종에 대한 지각된 이익과 백신에 대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t=-2.160,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t=2.082, p<.05$)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고,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t=2.416, p<.05$)과 또 다른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t=-2.446, p<.05$)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은 경우 백신 접종의도가 높아지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은 경우 그와 반대로 백신 접종의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과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사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의 간접 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사 유형이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을 거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12, -.002)에서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사 유형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을 거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11, -.001)에서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접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와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접종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접 효과 분석 결과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로 가는 경로에서 직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사 유형(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v.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기각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사 유형 중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를 접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사 유형 중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를 접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가 코로나19 감염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언론 보도가 지각된 취약성을 매개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병렬다중매개효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와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실험물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여 각각의 기사 실험물이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에서는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기사 유형(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v.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직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1〉이 기각되었다.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행위단서가 건강신념을 거쳐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Becker, et al., 1977; Janz & Becker, 1984; Mattson, 1999)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캠페인이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이익을 매개로 하여 예방행동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병관 외, 2008)와 일치한다. 천식예방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의 효과평가를 평가한 연구보고서(이병관·오현정·이상록·김은정, 2008)에서도 매스미디어에 의한 행위단서는 개인이 가진 신념을 통하여 행동변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행동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과는 대조된다. 즉 언론보도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단순 노출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개인의 신념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접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접종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각각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디어 보도가 위험에 대한 인식인 지각된 위험을 거쳐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Renn et al.,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보여준 선행연구인 유석조 외(2010)의 연구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 보도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백신 접종의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백신 부작용 보도 비노출 집단의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 백신 접종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백신 부작용 보도 노출 집단의 경우 백신 접종의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는 언론 보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보여준다.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언론보도의 경우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함으로써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높여

백신 접종 의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언론 보도의 경우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함으로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을 높여 백신 접종 의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유행 시작 40일만에 4만 6000여명 감염, 25일째 네 자릿 수”라는 기사 제목과 “사흘 간 백신 이상반응 3천건 이상 급증, 사망자는 5명 추가”라는 기사가 주는 결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공중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그러나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높은 접종률이 요청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백신 부작용을 강조하는 언론 기사의 과급 효과는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그 과급 효과가 상당함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사의 경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백신접종의 부작용을 전달하는 기사들의 경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 내용이 많다. 예로 JTBC의 2021년 9월 10일자 뉴스는 “건강했던 24세 교사, 화이자 맞고 소장 씹어 사망”라고 보도했고, 한국경제의 2021년 10월 14일자 뉴스는 “매주 등산하던 40대 가장, 모더나 맞고 피 토하며 사망”, 조선일보의 2021년 4월 1일자 뉴스에는 “아스트라 맞은 20·30대 의료진 85%서 이상반응”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그 과급효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영향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는 이미 2년 간 지속되어 왔고,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일상생활 정보의 양, 코로나19 백신 관련 미디어 정보의 양 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이를 최대한 통제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 정도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여 정부 정책 만족도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시기 상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이 다수 분포되어있는 고령층들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만성 질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감염 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령층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제한점으로 밝혀둔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확률 표본추출 방법에 비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낮다. 이에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과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결혼 여부 등이 대한민국 전체 집단에 일반화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고르게 분포시켜 어떠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염 고위험군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과 같은 추가적인 백신 접종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의미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 의도를 알아보는 것에 그쳤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의도가 실제 접종 행위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두 개의 대조되는 언론 보도의 영향력을 검토하였기에 동일한 기사에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이 모두 강조되거나 혼재되어 있는 기사의 영향력은 살펴보지 않았다. 특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의 과급효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피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될 경우 백신 접종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백신에 대한 반응 효능감이 높을 경우 백신 접종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에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가 건강신념모델의 하위 변인 중 지각된 이익을 매개하여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가 반응 효능감을 매개하여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면 건강신념모델 요인들 간의 관계 규명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건강 행동을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언론과 같은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관련 언론 보도가 사람들의 실제 건강행동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질병 발생은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성은 실제 질병 발생 위험성에 비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Prelec & Loewenstein, 1991; Thaler et. al., 1997). 사람들은 메시지에서 경고하는 내용이 먼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Hoek et al., 2013). 백신 접종은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미래적 위험을 위해 현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김재휘 외, 2011). 이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투입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Benartzi & Thaler, 1995).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질병 발생 위험에 대한 강조 뿐 아니라 지금 당장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김재휘 외, 2011).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지각된 취약성과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있다.

물론 백신 접종률을 염려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저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공중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기사가 작성되어야 한다. 예로

2021년 1월 24일 영국 식약청이 백신 접종 후 1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보건당국, 코로나19 백신 매우 안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때 143명의 사망자에 대한 내용은 기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다(정혜련, 2021). 영국 BBC의 보도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만큼 기사의 초점을 접종자 수 대비 현저히 적은 사망자 수에 맞추어 보도하였다고 보여진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무분별하게 추측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자극적인 단어나 사진, 헤드라인을 사용하는 것 등은 국내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에서도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을 것’,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이재희, 2020).

본 연구가 이론적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행위단서로서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가 실제로 사람들의 지각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강신념모델의 설명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예방 접종을 권장하는 캠페인 기획에 유용한 지침을 제시한다. 건강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취약성을 강조한 메시지를 노출시킨다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진 경우에만 접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목표공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캠페인 메시지가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감염병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영향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행위단서로서 언론보도가 지각된 취약성을 매개로 하여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언론 보도의 내용과 특성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잘 보여준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백신 접종 의도를 낮춘다고 해서 그러한 보도를 하지말거나 하는 것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공중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언론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좀 더 주의깊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공중보건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이 강조되고 역기능은 최소화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언론보도가 어느때보다 절실히 보인다.

References

- Abdelmutti, N., & Hoffman-Goetz, L. (2009). Risk messages about HPV, cervical cancer, and the HPV vaccine Gardasil: A content analysis of Canadian and US national newspaper articles. *Women & Health, 49*(5), 422-440.
- An, S. T., & Kang, S. M. (2017). Message framing effects of loss versus gain for older adults influenza vaccination -Mediating role of optimistic bias-. *Advertising Research, 113*(1), 104-134.
- Becker, M. H., Haefner, D. P., Kasl, S. V., Kirscht, J. P., Maiman, L. A., & Rosenstock, I. M. (1977). Selected psychosocial models and correlates of individual health-related behaviors. *Medical Care, 15*(supplement), 27-46.
- Benartzi, S., & Thaler, R. H. (1995). Myopic loss aversion and the equity premium puzzl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1), 73-92.
- Bond, L., Nolan, T., Pattison, P., & Carlin, J. (1998).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and immunisations: A qualitative study of mothers' perceptions of severity, susceptibility, benefits and barrier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2*(4), 441-446.
- Brewer, N. T., Chapman, G. B., Gibbons, F. X., Gerrard, M., McCaul, K. D., & Weinstein, N. D. (2007).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health behavior: The example of vaccination. *Health Psychology, 26*(2), 136.
- Carpenter, C. (201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health belief model variables in predicting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25*(8), 661-669.
- Cho, S. Y. (2011). Predicting women's cervical cancer prevention behaviors extending health belief model. *Advertising Research, 91*, 348-377.
- Choi, B. H. (2021).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general public's behavioral intention to prevent COVID-19. *Crisisonomy, 17*(3), 39-51.
- Choi, E. B., & Kim, H. S. (2011). The effect of publicity tones and involvement types on publics' perception change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5*(1), 135-168.
- Choi, J. S. (2009).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perception: The effects of media and social trust on the public's judgment of risk associated with mad cow disease.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3*(3), 165-188.
- Choi, M. I., Kim, K. H., & Joo, J. H. (2009). The effect of media exposure as a cue to action on purchase

- intention of US beef: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perceived severi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3(6), 50-65.
- Coleman, C. (1993). The influenc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societal and personal risk judgments. *Communication Research*, 20(4), 611-628.
- Dawson, A. (2005). Risk perceptions and ethical public health policy: MMR vaccination in the UK. *PoiesisPrax*, 3, 229-241.
- Dutta-Bergman, M. J. (2004). Primary sources of health information: Comparisons in the domain of health attitudes, health cognitions, and health behaviors. *Health Communication*, 16(3), 273-288.
- Eames, K. T., Tilston, N. L., Brooks-Pollock, E., & Edmunds, W. J. (2012). Measured dynamic social contact patterns explain the spread of H1N1v influenza. *PLoS Computational Biology*, 8(3), e1002425.
- Eggenger, S. (1998). The power of the pen: Medical journalism and public awareness. *Jama*, 279(17), 1400-1400.
- Evans, M. R., & Watson, P. A. (2003). Why do older people not get immunised against influenza?: A community survey. *Vaccine*, 21(19-20), 2421-2427.
- Finucane, M. L., Alhakami, A., Slovic, P., & Johnson, S. M.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3(1), 1-17.
- Gene, J., Espinola, A., Cabezas, C., & Boix, C. (1992). Do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influenza and its immunization affect the likelihood of obtaining immunization? *Family Practice Research Journal*, 12(1), 61-73.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nanasekaran, S. K., Finkelstein, J. A., Hohman, K., O'Brien, M., Kruskal, B., & Lieu, T. A. (2006). Parental perspectives on influenza vaccination among children with asthma. *Public Health Reports*, 121(2), 181-188.
- Gregory, R. S., & Satterfield, T. A. (2002). Beyond perception: The experience of risk and stigma in community contexts. *Risk Analysis*, 22(2), 347-358.
- Han, J. H. (2002). Effects of risk communication in vacci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ayden, J. (2009). *Introduction to Health Behavior Theory*. NJ: Jones & Bartlett Learning.
- Henard, D. H. (2002). Negative publicity: What companies need to know about public reactions. *Public*

Relations Quarterly, 47(4), p.8.

- Hoek, J., Hoek-Sims, A., & Gendall, P. (2013).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young adult smokers' responses to novel tobacco warnings. *BMC Public Health*, 13(1), 1-10.
- Hong, S. (2013). The effects of cancer-related information search from media as communication cues on health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1), 76-86.
- Hove, T., Paek, H. J., Yun, M., & Jwa, B. (2015). How newspapers represent environmental risk: The case of carcinogenic hazards in South Korea. *Journal of Risk Research*, 18(10), 1320-1336.
- Hutchinson, P., & Wheeler, J. (2006). The cost-effectiveness of health communication program: What do we know?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 7-45.
- Jang, Y. J., & Kim, Y. W. (2016). The Influences of cues to action, fear, and trust in government on risk perception and behavior intention: Focus on Japanese fishery products intakes after the Fukushima Daichi nuclear disaster.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7(8), 7-32.
- Janz, N. K., & Becker, M. H. (1984).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11(1), 1-47.
- Jeong, H. R. (2021, March 5). *Media reports that destroy 'vaccine trust,' what about overseas?* TBS News. Retrieved from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425942&seq_800=20418519
- Jones, K. O., Denham, B. E., & Springston, J. K. (2006). Effects of mass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breast cancer screening: Advancing agenda-setting theory in health context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4(1), 94-113.
- Jo, S. E., Shin, H. C., Yoo, S. W., & Roh, H. S. (2012).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tuberculosis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s: An extension of HBM with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fear. *Korean Academic Society for Public Relations*, 16(1), 148-177.
- Joo, J. (2017). Exploration of structural relations on health behavior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Focused on 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severity, and health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413-421.
- Ju, Y. K., & You, M. S. (2010). Representing health risk: A quantitative analysis of Korean news media's coverage of emerging diseases and chronic on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2), 363-381.
- Jung, E. C., & Jin, C. H. (2011). Breast and cervical cancer communication channels and screening inten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9(2), 139-162.

Jung, J. H., & Kim, O. J. (2020). Ethics of COVID-19 (SARS-CoV-2) vaccine research.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3(3), 1-25.

Jung, K. Y. (2020, December 7). *Even if the COVID-19 vaccine is unstable, it's hard not to get vaccinated*. Busan Daily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0718575891660>

Karlsson, L. C., Soveri, A., Lewandowsky, S., Karlsson, L., Karlsson, H., Nolvi, S., ... & Antfolk, J. (2020). Fearing the disease or the vaccine: The case of COVID-19.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2, 110590.

KBS (2021).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of COVID-19*.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datafile/2021/09/27/305671632701762810.pdf>

Kim, E. S. (2015). A social analysis of the limitation of governmental MERS risk communication.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1, 91-109.

Kim, H., Oh, H. J., Hong, D. Y., Shim, J. C., & Chang, J. (2018). The effects of media use on risk perceptions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of 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s of information processing. *Advertising Research*, 119, 123-152.

Kim, J. E., Jeon, S. H., & Cho, S. Y. (2018). Factors influencing Korean young adults intentions to prevent diabet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0(4), 231-273.

Kim, J. H. (2021, May 13). *To increase the vaccination rate, do not ignore public concerns about side effects*.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5095.html>

Kim, J. H., & Boo, S. H. (2011). Communication strategy to promote health-prevention behavior: The effect of message framing and myopic bias in the inter-temporal choice.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2(7), 111-133.

Kim, J. H., & Yoon, Y. M. (2010).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experiences as negative cues to action on attitude toward drug abuse: Modifying health belief mode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4, 5-31.

Kim, J. S., & Shin, H. C. (2020).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reporting on milk and consumers' health beliefs, reliability and willingness to buy - Focusing on health belief model. *Journal of the Table & Food Coordinate*, 15(1), 37-60.

Kim, O. T., & Kim, K. C. (2010). Media coverage on swine influenza and third-person effec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4, 344-367.

- Latimer, A. E., Salovey, P., & Rothman, A. J. (2007). The effectiveness of gain-framed messages for encouraging disease prevention behavior: Is all hope lost?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2, 645-649.
- Lazarus, R. S. (1991).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8), 819-834.
- Lee, B. K., Oh, H. J., Lee, S. R., & Kim, E. J. (2008). *Media campaign evaluation to prevent asthma*.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Lee, B. K., Oh, H. J., Shin, K. A., & Ko, J. Y. (2008). The effect of media campaign as a cue to action on influenza prevention behavior: Extending health belief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0(4), 108-138.
- Lee, G. O. (2010). Risk communication perspective in health research.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2(2), 1-30.
- Lee, J. H. (2020, April 28). *Enactment of the 'Rules for reporting infectious diseases' by three journalist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journalists association*. YBC Combined Broadcasting. Retrieved from <http://www.ybctv.net/news/articleView.html?idxno=23341>
- Lee, M., & Hong, J. (2018). Analysis of news articles regarding safety issue of HPV vaccine.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19(2), 77-88.
- Marra, F., Cloutier, K., Oteng, B., Marra, C., & Ogilvie, G. (2009). Effectiveness and cost effectiveness of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A systematic review. *Pharmacoeconomics*, 27(2), 127-147.
- Mattson, M. (1999).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communication cues to action in health belief model: HIV test counselling. *Communication Monographs*, 66, 240-265.
- Mok, E., Yeung, S. H., & Chan, M. F. (2006). Prevalence of influenza vaccination and correlates of intention to be vaccinated among Hong Kong Chinese. *Public Health Nursing*, 23(6), 506-515.
- Morton, T., & Duck, J. (2001). Communication and health beliefs: Mass and interpersonal influences on perceptions of risk to self and others. *Communication Research*, 28(5), 602-626.
- Mudambi, S. M., & Schuff, D. (2010). What makes a helpful online review? A study of customer reviews on amazon.com. *MIS Quarterly*, 34(1), 185-200.
- National Medical Center (2021). *COVID-19 National Awareness Survey*. Retrieved from <https://www.nmc.or.kr/nmc/singl/convert/convertToHtml.do?viewType= CONTBODY &atchFileId=92843934904949>

cca7945ec38d524000&fileSn=

- Paek, H. J. (2017). Strategic risk communication for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he evolving landscape of publics and medi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0(4), 306-313.
- Park, J. J. (2021, April 22). *Conservative media selling fear, distorted vaccine news*. MBC News. Retrieved from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125067_28993.html
- Prelec, D., & Loewenstein, G. (1991). Decision making over time and under uncertainty: A common approach. *Management Science*, 37(7), 770-786.
- Renn, O., Burns, W. J., Ksperson, J. X., Ksperson, R. E., & Slovic, P. (1992).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37-160.
- Rogers, E. M., & Adhikarya, R. (1979). Diffusion of innovations: An up-to-date review and commentary.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3(1), 67-81.
- Rosenstock, I. M. (1974). Historical origin of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4), 328-335.
- Rosenstock, I., Stretcher, V., & Becker, M. (199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HIV risk behavior. In *Preventing AIDS* (pp. 5-24). Springer, Boston, MA.
- Sandman, P. M., Miller, P. M., Johnson, B. B., & Weinstein, N. D. (1993). Agency communication, community outrage, and perception of risk: Three simulation experiments. *Risk Analysis*, 13(6), 585-598.
- Seong, J. H. (2021). COVID-19 vaccine report, escape from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comes before the breaking news competition. *Korea Broadcasting Journalist*, 59, 94-95.
- Sheeran, P., & Abraham, C. (2001). The health belief model. In M. Conner & P. Norman (Eds.), *Predicting Health Behaviour* (pp. 23-61).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Singer, E., & Endremy, P. (1993). *Reporting on risk*.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Sogang Health Communication Center (2021). *A survey on public awareness of 'COVID-19 and vaccine communication'*. Retrieved from <https://shc.sogang.ac.kr/front/cmsboardlist.do>
- Son, J. A. (2015). The effects of perceived vulnerability and the belief in just world in donation 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H. R., Kim, C. W., & Kim, W. J. (2013). Public trust on media dependency and attitude toward media news: Focused on nuclear (power) technology.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29, 115-147.
- Thaler, R. H., Tversky, A., Kahneman, D., & Schwartz, A. (1997). The effect of myopia and loss aversion on

- risk taking: An experimental tes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2), 647-661.
- Tversky, A. (1974). Assessing uncertaint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6(2), 148-159.
- Tyler, T. R., & Cook, F. L. (1984). The mass media and judgments of risk: Distinguishing impact on personal and societal leve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693-708.
- Wang, J. S., & Kim, S. Y. (2021, Apri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1-16.
- Wilson, T. D., Wheatley, T. P., Kurtz, J. L., Dunn, E. W., & Gilbert, D. T. (2004). When to fire: Anticipatory versus postevent reconstrual of uncontrollable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3), 340-351.
- Witte, K., Cameron, K. A., McKeon, J. K., & Berkowitz, J. M. (1996). Predicting risk behavior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iagnostic scal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 317-341.
- Yang, J. H. (2010). Constructing the meaning of risk society: How Korean press frame the swine flu pandemic.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17, 169-212.
- Yoo, S. J., Jeong, H. J., & Park, H. S. (2010). The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for H1N1 virus vaccination and the impact of negative news reports the comparison between HBM and TPB.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2(3), 283-319.
- Yoo, W. H., & Chung, Y. K. (2016). The role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tween exposure to mass media and MERS-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face-to-face and online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0(4), 121-151.
- Yoon, D. Y. (2016). The effect of verticality(looking up and down) and message-framing on health preventiv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Zhang, H., Park, J. S., & Lee, K. S. (2020).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s of overseas infectious disease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NS eWOM.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2(2), 265-302.
- Zimmerman, R. S., & Vernberg, D. (1994). Models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 Comparison, critique, and meta-analysis. *Advances in Medical Sociology*, 4, 45-67.

최초 투고일 2021년 12월 08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1월 28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2월 05일

부록 I. 국문 참고문헌

- 국립중앙의료원 (2021).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Retrieved from <https://www.nmc.or.kr/nmc/singl/convert/convertToHtml.do?viewType= CONTBODY&atchFileId=92843934904949cca7945ec38d524000&fileSn=>
- 김옥태·김규찬 (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6호, 344-367.
- 김은성 (2015). 메르스 관련 정부 위험소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원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10호, 91-109.
- 김재휘·부수현 (2011). 건강예방행동 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메시지 프레이밍과 시점-간 선택에서의 근시안적 편향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2권, 111-133.
- 김준홍·윤영민 (2010). 부정적 행위단서로서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일반인의 약물사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신념의 매개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5-31.
- 김지은·전상현·조수영 (2018). 20~30 대 성인들의 당뇨병 예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광고홍보학보>, 20권 4호, 231-273.
- 김지훈 (2021, 5, 13). 백신 접종률 높이려면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 외면 말아야.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5095.html>
- 김진서·신형철 (2020). 우유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소비자의 건강신념, 신뢰도, 구매의도 간의 관계: 건강신념 모델을 중심으로. <식공간연구>, 15권 1호, 37-60.
- 김환빈·오현정·홍다예·심재철·장정현 (2018). 미디어 이용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119호, 123-152.
- 박진준 (2021, 4, 22). 공포를 피는 보수언론, 왜곡된 백신 뉴스. <MBC뉴스>. Retrieved from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125067_28993.html
- 백혜진 (2017). 전략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소통: 변화하는 공중의 역할과 미디어 환경. <대한의사협회지>, 60권 4호, 306-313.
- 서강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2021). '코로나19와 백신소통'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Retrieved from <https://shc.sogang.ac.kr/front/cmsboardlist.do>
- 성재호 (2021). 코로나 백신 보도, 속보 경쟁보다 감염병 위기 탈출이 먼저입니다. <방송기자>, 59권, 94-95.
- 손정아 (2015).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과 공정세상신념이 기부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해룡·김찬원·김원제 (2013). 미디어 의존과 미디어 보도 태도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성 연구-원자력 기술(발전소 포함)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9권, 115-147.
- 안순태·강승미 (2017). 노인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한 손실과 이득 프레이밍: 낙관적 편견의 매개 효과. <광고연구>, 113호, 104-134.
- 양정혜 (2010). 위험사회의 의미 구성하기: 국내 언론의 신종플루 프레이밍 방식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7권, 169-212.
- 왕재선·김서용 (2021, 4월). <COVID-19 예방백신 접종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1-16.
- 유석조·정현주·박현순 (2010).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들 및 백신 부작용 보도의 영향 분석: 건강신념모델과 계획된 행동 이론 간 비교. <한국광고홍보학보>, 12권 3호, 283-319.
- 유우현·정용국 (2016). 매스미디어 노출과 메르스 예방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면대면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매개 및 조절효과. <한국방송학보>, 30권 4호, 121-151.
- 윤도연 (2016). <의료광고를 바라보는 방향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소비자의 백신 예방 접종 의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옥 (2010). 헬스 연구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점.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권 2호, 1-30.
- 이미나·홍주현 (2018).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 분석.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9권 2호, 77-88.
- 이병관·오현정·신경아·고재영 (2008). 행위단서로서의 미디어 캠페인이 인플루엔자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강신념모델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0권 4호, 108-138.
- 이병관·오현정·이상록·김은정 (2008). <천식 예방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 평가>. 질병관리본부.
- 이재희 (2020, 4, 28). 한국기자협회 등 기자 3단체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YBC 연합방송>. Retrieved from <http://www.ybctv.net/news/articleView.html?idxno=23341>
- 장유진·김영옥 (2016). 행위단서, 공포 및 정부신뢰도가 위험인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섭취 이슈 중심 분석. <광고학연구>, 27권 8호, 7-32.
- 장해·박주식·이경식 (2020).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해외 감염병 예방 행동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적 행위단서로서의 SNS 구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2권 2호, 265-302.
- 정광용 (2020, 12, 7). 코로나19 백신 불안하더라도, 안 맞기엔... <부산일보>. Retrieved from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0718575891660>

- 정의철·진창현 (2011). 유방암·자궁경부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검진의도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권 2호, 139-162.
- 정준호·김옥주 (2020). 코로나19 (SARS-CoV-2) 백신 연구의 윤리. <생명윤리정책연구>, 13권 3호, 1-25.
- 정혜련 (2021, 3, 5). ‘백신 신뢰’ 무너뜨리는 언론 보도, 해외에선?. <TBS뉴스>. Retrieved from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425942&seq_800=20418519
- 조성은·신호창·유선욱·노형신 (2012). 결핵 예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기관능감과 공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건강신념모델의 확장. <홍보학연구>, 16권 1호, 148-177.
- 조수영 (2011). 효과적인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캠페인을 위한 수용자 연구: 확장된 HBM 적용. <광고연구>, 91호, 348-377.
- 주영기·유명순 (2010). 신문·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63-381.
- 주지혁 (2017).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동에 대한 구조적 관계의 탐색: 다차원 건강통제소재,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및 건강행동의도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권 11호, 413-421.
- 최명일·김경환·주지혁 (2009). 행위단서로서 광우병 관련 미디어 노출이 미국산 쇠고기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50-65.
- 최부현 (2021). 일반 대중의 코로나19 예방행동의도 결정요인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7권 3호, 39-51.
- 최은비·김효숙 (2011). 언론보도 어조와 관여 유형이 공중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15권 1호, 135-168.
- 최진식 (2009). 위험성 인식의 사회적 증폭요인에 관한 연구: 언론보도와 사회적 신뢰가 광우병 위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권 3호, 165-188.
- 한주희 (2002). <예방접종과 관련된 위해도 의사소통 효과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석민 (2013). 행위단서인 매체에서 암 관련 정보추구 유무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9권 1호, 76-86.
- KBS (2021). <코로나19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변화 추이 조사 9월 결과보고서>.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datafile/2021/09/27/305671632701762810.pdf>

부록Ⅱ-1.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

4차 유행시작 40일만에 4만 6000여명 감염, 25일째 네 자릿 수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03 11:43



221



3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대를 넘어서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연령층에서 늘고 있다. 최근 4차 유행시작 후 40일만에 4만 6000여명이 감염되고 25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부록Ⅱ-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

사흘 간 백신 이상반응 3천건 이상 급증, 사망자는 5명 추가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03 11:43



3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대를 넘어서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사흘간 백신 이상반응이 3천건 이상 급증했고, 사망자는 5명이 추가되었다. 백신 부작용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언론 보도와 백신 접종 의도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의 매개효과

홍주나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의도를 건강신념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정성과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보았을 때 언론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에게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과 백신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언론의 보도 행태가 코로나19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의 지각된 취약성 변수를 연구의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를 각각 제시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는 20세 이상 - 50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거나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응답자들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26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병렬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실험물을 본 응답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졌고,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가 높아지는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에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실험물을 본 응답자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가 낮아지는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에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 변인인 기사유형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또한 건강신념모델의 지각된 취약성과 행위단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건강 행동을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언론과 같은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건강 관련 언론 보도가 사람들의 실제 건강행동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함에 있어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핵심어 : 언론 보도, 행위단서,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백신 접종의도